

오늘은 좋은날

최고의 품질 —————

콜덴텍스

 **第一毛織**

鄭允武
〈행정대학원 교수〉
社會心理學

행동 양식등 이른바 學生文化는 중
요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
이다. 여기서 필자는 주로 日本 학
생문화의 특점을 논의하면서 우리
나라 學生文化의 특성 및 문제점
을 진단하고자 한다.

[illegible]

먼저 학생회의 유형을 대략적으로
「B」를 「C」는 학생이 자기 스스로
수행한 대화와 통일화한 정도와
학생의 지식 및 지성의 대안과
학생의 정도는 두 가지 측면에 의해
다양하고 깊다. 네개의 학생회의 유형
형을 추구하고 있다.

첫째 「學問型」文化。
이것은 大學의 同化도 높고
머 학문의 知性에 대한 높은 관심을
학생회에서 나타내는 文化型
이다.

학생문화의 네가지 유형중에서 학문형 문화, 직업형 문화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이형 문화 및 비순응성 문화가 지배적이 되고 있는 것은 매스단계의 대학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要因

대법원의 가치관, 사고방식, 행
양식,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
우리 그 대법원에 맡겨놓은 대법
관들, 설마 카리큘럼대로 교수
의 하위 교수들 부패를 부수었다.
이런 카리큘럼 부패의 특성
이 일반 대중이나 대법관의 특성
으로 중언부언했지만 그중에서
장문제가, 더구나 재야 교수나
유명 대법관 자체의 그 교수법
이나 학자적인.

만화에의 유착은 兒童化현상 유발
教授자세가 학생 가치관에 큰 영향

[illegible]

14-00000

[illegible]

1987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 최종
확인 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기간 : 87. 3. 25(수)~3. 27(금)3일간
2. 장소 : 각대학교학과·학과
3. 대상 : 전교 재학생 (서울캠퍼스·경주캠퍼스)
4. 유의사항

- 가. 수강신청과목 임의변경(취소·추가)은 절대
불가함
- 나. 전산처리 오류, 학생들의 기재 착오, 분반배
강으로 인한 강좌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
한하여 정정가능함
- 다. 정정사항은 학과 조교 및 교학과에 신고하
거

1년 동안 편지를 드립니다!!

동국대학교

DIARY

값 2 천 3 백 원

<주요 수록내용>

● 1987~1988년 카렌다	● 서울·경주캠퍼스 화보
● 학사일정	●年間행사대정표
● 메모판	● 교과적 공부일람
● 전국의 대학수특색	● 강의시간표
● 우리라지도 등	

□구입처 :

많은 대학인과
직장인들이 파고다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는 이유는

외국어 교육과 우리의 영광된 미래를 위해
별처럼 빛나는 교수진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B ASIC부터 고급에 이르는 미인영어회화·S.L.E. (각반 12명 / 강사전원 학사·석사출신 미국민 / 10달완성) · 미국생활영어·Side by Side 기초영어회화· Active 회화

E NGLISH 영작, 문법·TIME·영어순해·TOEFL·종합영어
영어독해·성문기본영어·영어실력기초·KOREA TIMES
VOCABULARY·AFKN 청취·TOEFL L/C·부역영어

SPEAKING과 LISTENING을 동시에 향유련하는 日本語・표준일본어・NHK 일어청취・일어통역가이드・프랑스어・프랑스어회화・독어・독어회화・중국어・중국어회화

TUTORIAL SYSTEM으로 특수훈련된 최신어학교수법
외국식 학습분위기·최신시설·전철권발급·수료증 취득

274-4000, 274-8821, 8822
다우하기 예약주소

종로 2가파고다공원건너편한빌딩

5월 5일 **새하루** **파고다**

○예비군설치법 제 6 조 및 동시행령 13 조에 의거, 87년 전반기
예비군기본교육을 아래와 같이 소집함

1. 교육대상 : 전예비군학생및 교직원
(87년 1학기 입학및 복학생포함)
2. 교육대상에서 제외되는자

- | | | |
|-----------------|----------------|----------------------|
| 가. 소집면제 | 처분권 | 미필보충역 (화부 및 대학원포함) |
| 나. 87년 1월 1일 이후 | 전역한 | 예비역 (병, 하사관, 장교에 한함) |
| 87년 1월 1일 이후 | 보충역필 (방위제대자) 는 | 필히 |
| 비군교육에 응해야 함 | | |
| 다. 87년 1월 1일 이후 | 복합훈련 | 필한자 |

3. 대학 교육일정									
교육일자		강사명		교과명		교수		목 록	
87. 4. 4	08: 00 ~ 11: 00	통과학과, 법정		중강당		신상교		○	
87. 4. 9	08: 00 ~ 11: 00	이무환(경제, 무역경영)		중강당		(중강당)		○	
87. 4. 10	08: 00 ~ 11: 00	전진, 장재(사회, 정치)		중강당		08: 00 ~ 11: 00		○	
87. 4. 11	08: 00 ~ 11: 00	경상대학교, 이화		중강당		○		○	
87. 4. 18	08: 00 ~ 11: 00	(사법)		학원강당		13: 00 ~ 16: 00		○	
87. 4. 25	08: 00 ~ 11: 00	통과학과, 공과		중강당		○		○	
87. 4. 26	08: 00 ~ 11: 00	통과학과, 사법		중강당		○		○	
87. 5. 16	08: 00 ~ 11: 00	교직원, 장교		학원강당		(사법)		○	

4. 유별사항
- 가. 각개인은 위의 자기 소속대학별 교육일자및 집합시간
을(교육개시 10분전까지) 필히 준수하여 참석바람
- 나. 지연도착자및 교육시간중 무단이탈자는 당일 전체교
육을 불참으로 처리함
- 다. 교육불참자는 1,5배~2배의 복수교육을 받아야함

10.375-3.0.03

동국대학교 예비군 연대장

문예창작을 통해 東國文學의 전통을 계승하고 학생들의 정서 순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작품을 공모합니다.

다 음

- 모집분야 및 상금
1. 시(3~5편): 당선작 1편 10만원
 2. 소설(80매내외): 당선작 1편 20만원
 3. 수필(20매내외): 당선작 1편 10만원
 4. 문학평론(70매내외): 당선작 1편 15만원

○마감 : 1987년 4월 6일 오후 5시

○접수 : 경주캠퍼스 학생회관2층

시립편집실

○자격 : 서울·경주캠퍼스 재학생

○심사결과 : 추후공고

▲ 당선작이 없을시는 가작처리(상금은 당

선작의 절반)

○당선작은 시립 제7집에 게재하되 원

고료는 상금으로 대신함

1987년 3월 일

충국대학교 慶州캠퍼스

「始林」편집위원회

制度言論이란 무엇인가



尹 溶

「言論이란 무엇인가」
言論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나 인성의 표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언론인이 사형선고를 받거나 투옥되는 등,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이 책은 언론의 자유와 언론인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尹 溶

〈서울대학교 교수·언론학자〉

제언론론과 비제언론론 「제언론론」과 「비제언론론」의 차이점

제언론론이란 언론의 자유와 언론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언론이 사회의 공익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반면 비제언론론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론으로, 언론이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두 이론은 언론의 역할과 언론인의 지위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보여준다.

제언론론은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론으로, 언론이 사회의 공익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반면 비제언론론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론으로, 언론이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두 이론은 언론의 역할과 언론인의 지위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보여준다.

제언론론은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론으로, 언론이 사회의 공익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반면 비제언론론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론으로, 언론이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두 이론은 언론의 역할과 언론인의 지위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보여준다.

이념서적 단속의 현실성

이념서적 단속의 현실성
이념서적 단속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단속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지식의 확산을 저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단속의 현실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불온서적과 "違憲" 단속

불온서적과 "違憲" 단속
불온서적은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단속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지식의 확산을 저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단속의 현실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불온서적과 "違憲" 단속
불온서적은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단속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지식의 확산을 저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단속의 현실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헤진시집 29
인당수에 부는 바람
河古男 詩集
서정의 농숙과 참신성을 지닌 有精의 詩篇들!
하진집에 있어서 詩란 바로 인연의 줄을 찾아가는 영혼의 자기구제 방법일 것이다. 인당수 물의 흐름이 바로 그 죽음과 탄생 그리고 눈물과 눈물이란 영혼의 변주법이 아닐 것인가.
값 2,500원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345-3호 ☎712-7398
헤진서관

李在仁 田園수필집
우리를 순수케 하는 것은
시보다 아름답고 소설보다 재미있는 동화보다 순수한 에세이
도서출판 미리내
국판 200쪽 / 값 2500원
제판 269-2669

鍾閣出版社
中等教師 校監昇進
教育學特講 (上) 카세트 10개 과목
교육기초·교육원리·교육사·교육철학·교육과정·교육심리·직업윤리·학교 및 학급경영·교육제도·국민교육헌장·새마을교육·사사 및 일반교양(부록) 해방 이후 교육학 실례시문예 및 정답 전부 수록
▲책대 8,000원 ▲카세트25개×3,000원(개당) = 75,000원 ▲상표 2,000원
교육學特講 (下) 카세트 10개 과목
교수 및 학습지도·시정교육·교육평가·생활지도·교육연구·학교와 지역사회·교육행정·장학제도·교사론·교육법규·출판평가문제해설(부록) 해방 이후 교육학 실례시문예 및 정답 전부 수록
▲책대 8,000원 ▲카세트28개×3,000원(개당) = 84,000원 ▲상표 2,000원
국립방법 (복음 카세트)
▲教材: 전국시정·판대중 / (사무실) 서울·종로구 종로2가 YMCA 3층312호 (우편대체)계좌번호 010041-31-504316종교출판사 (주체라이프) 110 서울광화문 우체국사서함 969 호 종각출판사 앞으로 소정의 금액을 「소액환」이나 「통상환승서」로 반드시서 등기로 우송하시면 즉시 카세트를 발송해 드립니다.
☎ 734-1161 734-5551
YMCA 3층 312호

30년 전통의 대학생을 위한 外國語 專門 Training Center
영어 일어
TOEFL (아카데미, 이체숙)
VOCABULARY
영어 순화
대학 기본 영어
성문 종합 영어
영어 실력 기초
한인회화
서번어語 中國語 獨語 佛語
KAVEP
시청각 영어회화 코스
오전 전통의 KAVEP과 HIA-V의 정진만을 실행
■학원 12월 정원의 초·중·고급 및 응용 I/II
■실용 TEST에 의한 합리적인 편성으로
■특수 2인1실제 교육 (60분 이상실용교육)
■최신의 시설과 최고의 미용의 3인1실제 교육
■미시간 대학 ELI 교재를 사용 확실히 교수력으로 지도하는것이 지극히 KAVEP 시청각 영어회화코스의 자랑입니다.
KOREA AUDIO VISUAL EDUCATION PROJECT
한대학원시험준비반 (1회)
한국의외국어학원 (HLI)
종로2가태극당뒤 ☎ 732-0601 / 4

YMCA
TOEFL/NEW HORIZON 회화
Yoc.22000/연말월 회화
종학영어 1, 2, 3/가교영어
종학 YMC 1, 2, 3/가교영어
70년 전통 외국어교육의 전통
YMCA
☎ 732-8291 735-1400
각텔
男·女 (여성기술자 부족)
정부인정정규학원
(株) 한국외국어학원지정 (국내단하나)
아간고소득 80년 계속취업 호텔 및 상업
취업제인=서울→LA 국제→부산→직영
●LA 시청각 (시음, 美國 지방증정)
●美, 개러슨계약 (여성)
●교부 (정규수료증, MSQ, 통학권 발급)
院長 김 호남: 양주익텔 총, 최총
심사 歷任
안내: 752-7244/7857
취업연: 753-2858/부산: 42-1004
시: 청: 중앙일보복속 (사소문 고가원)
전문: 國際각텔 교육: 國際각텔

회계학 특강
개강: 4·1
주말반
회계원리반
중급회계반
1급회계반
고급회계반
평일반
기초회계반
2급회계반
1급회계반
고급회계반
時事會計
733-6666
734-1414

時調文學의 계승가치와 創作機能



金 東 俊
〈사범대학교수·中世詩論論〉

3
現代時調에서 민족정신이나 민족정서를 추구하는 일은 現代時調의 폐쇄화나 文學의 국수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정신의 자연발생적인 개방이나 자유의식은 반드시 예술양식의 파파나 자유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민족詩가 그 민족의 특성을 개성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면 개인이든 개인, 민족이든 민족으로서의 개별적 특수성을 고양하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시적 성취로 내보이는 일이 현대시의 특질이자 개성화인 것이다. 시조가 민족시라고 하는 것은

現代時調에서 민족정신이나 민족정서를 추구하는 일은 현대시조의 폐쇄화나 文學의 국수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은, 우리 민족의 시적 정형은 시조밖에 없다는 말이다. 현대시의 다양성이 반드시 예술양식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정제된 다면성이나 집단의 현대적 감각은 오히려 적극적인 예술적 정형성을 정서적으로나 심경적으로 동경하고 갈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다양하고 풍부한 무개성적인 자유시보다는 정형화된 시조가 현대시조가 갖는 감성적 유연성 약점은 아닌 것이다.

時調가 조선시대의 문화의 왕좌로 군림했고, 장형인 歌辭보다는 단형인 時調에 문화의 성취를 기대했다는 역사적 사실로서 現代時調를 설명할 수는 없다. 문제는 時調가 정형시라는 하나의 틀로서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가이다. 3장 6구 12음의 정형규정이 갖는 틀의 完美함이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에 있어서도 변함없는가. 전통이나 민족이라는 의도적 편견을 벗어나서도 또 옛날

의 唱調로서의 時調의 틀이 시로서도 그대로 새로운 가치로서 정당하게 존립할 수 있는가. 이렇게 볼 때 민족시와 민족시가 아닌 시의 차이는 단지 형식적 특색이나 관념적 해석의 차이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창작의 동기, 창작의 실제, 작품의 성파에 이르기까지 차별지어주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창작의 현장에서 시조와 자유시들만 대어 놓고 볼 때 시적 발상이나 표현 기법, 정서양식의 차이까지를 구별짓게 하면서 시조는 시조, 자유시는 자유시의 그것이 본질적 조건으로 내세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의 형식은 그 시인의 정서와 사상까지도 바꾸어 놓

은 형식의 대체나 선택의 관점에 있지 않다. 詩體의 구성이나 그 운운은 예술적 달성을 위한 궁극적 목표에 의해서 결정되고, 자유시의 그것이 자유시의 그것으로 정지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한다면 시조나 자유시의 서로 다른 양식적 차별을 위해서도 오히려 시조가 자유시보다 나은 것은 아닐 것이다.

4
時調는 시로서보다는 음악의 唱調로서 환영받던 과거의 시가였다. 시와 음악이一體를 이루면 시조가 현대시조에서처럼 음악성을 배제하고서도 시의 한 양식으로서의 예술적 가치가 손상된다거나, 불구체이거나 불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現代時調의 출발부터가 현대시조의 긍정적 인식이나 음악의 唱調形式으로서의 시조가 시의 형식으로서의 시조로서 조금도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현대시의 양식적 외관을 갖게 되지만, 이러한 것은 현대정신이 반드시 예술양식의 자유화나 그 파괴에서만 해결되어진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민족적 개별화나 예술의 개성화가 강조되면서 예술적 특표에 강조되고 발전되면서 예술의 정형화를 꿈꾸고, 이 꿈을 실현하려는 힘이 일면 현대정신의 특징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時調의 唱調로서의 정형성은 시로서의 정형성으로 완전히 대체되어지면 시, 그 정형성의 특질이 현

기본형 또는 기준형이라하여 크게 영향을 끼쳐 왔다고 보는 몇 표본을 보면, ①3·4·4·4·4, 3·4·4·4, 3·4·4·4 (李殷相<시조단행본>東亞日報, 1928) ②6~9·6~9, 5~8·6~9, 3·5~8·4~5·3~4 (李秉世<律格과時調>東亞日報, 1928) ③3·4·4(3)·4, 3·4·4(3)·4, 3·5·4·3 (趙潤濟<時調字數考><新興>제4호, 1930) ④7·7·7·7·9·7 (李泰極<時調概論>)

우선 이표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①은 종장의 특성이 자유시상으로 드러나 있지않고 고시조의 실상과도 배치된다 ②는 종장을 2구로, 종장을 4구로 나누고 있는데, 종장

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법으로 句法計算을 잘못. ③고시조를 字數統計하여 3장 6구 12음으로 구성된 결과 ④와 ⑤의 결충형.

여기서 공통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句法計算에서 12구 (③), 8구 (④), 6구 (⑤)로서, 구법의 기준을 달리 잡고 있다. 정형시에서 특히 시조에서 하는 시조형식의 종후, 율격의 절서단위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구의 척도를 몇대로 고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조의 기준으로서 무책임한 설정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 李殷相의 신흥곡을 보면, 15자 (①), 38~55자(②) 43~45자 (③), 39~54자(④)로서, ②의 경우 17자의, ③의 경우 2자의, ④의 경우 15자의 신흥곡을 인정하고 있다.

古時調의 예에서도 특별한 예외는 있을지언정 한 편의 時調에서 15자나 17자의 차이를 보이는 예는 드물고, 또 반대로 字數上으로 45자 다 하고 규정하기가 어렵고, 어느 정도의 字數上的 차이를 보이고 있음은 고시조의 字數上的 실상이자 字數上의 신흥곡으로서는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가장 민족적인 文學이 가장 세계적인 文學이다. 라는 말에서 우리는 時調가 우리민족의 정서를 담당하며 세계적 수평을 열어나 감을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형 아닌 기준형이 학계에 공인되면서 초·중·고 국정교과서에 그대로 오르고, 時調 한 수의 자수를 45자를 기준으로 하여 40자에서 50자라 하기도 한다. 기준형을 제시하고서도 40자~50자의 주위이며, 또 어떤 근거로 40자로, 50자로 자로 재

수인 것이다. 시조의 정형들이 자유시에서 안된다. 古時調의 字數結果는 통계된 숫자요, 이 숫자는 국어의 語形論의 기준인 것이다. 시조의 기준형은 3장 6구 12음각으로서, 시적 표현의 미성숙의 一面이 句가 되고, 이 句는 2개의 律脚에 의해서 지탱되어지는 것이다.

律脚은 시체율격의 용어이고 문장상으로는 語節格이라 할 것이다.

또 句를 律格單位라고 하며 時調의 律格單位는 時調라는 詩體形式을 지탱해 주고 있는 절서요, 이 율격단위를 지탱하는 것은 律脚이라는 기본단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律脚은 한語節인 수도 있고, 두 語節이 될 수도 있는데 다만 한 율격의 길이는 句의 제한으로 스스로 조정되어지기 때문에 時調의 정형들은 앞에서 본 字數定型이 아니라 律格定型이기 때문에 그 律脚이 1句를 이루고 2句가 한쌍을 이루는 기본절서가 시조의 定型이기 때문에 앞의 표가 달해 주듯이 字數의 신흥은 불가능이 아니라 律格形成의 당연한 원리란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형시는 형식의 고수가 아니라, 그 형식을 준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자유시는 형식의 무형시로의 이탈이 아니라, 형식에로의 환원이라는 명제를 현대시의 형식원리에서 자각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모든 예술의 궁극적 결속이 하나의 양식화에 있는것이라고 할 때, 형식의 구속성이 오히려 예술적 가치를 특징지으면서, 시형식의 원리로 본다면, 정형시로서의 시조는 형식을 넘쳐버린 현대자유시보다 훨씬 시적이고, 시의 본질에 가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시조시인의 현실이 위대한 또 하나의 위대한 민족적 조건을 창조할 여지나 조건을 지니지 못한 외로운 창조자라고 불리워질지라도 폐쇄의 말처럼 『가장 민족적인 문학이 가장 세계적인 문학이다』라는 말에 동의한다면 우리 문학에서 민족시로서의 시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시조가 우리 민족문화를 담당할 수 밖에 없다는 명제에서 또는 세계적 수평을 열어나간다는 현대문학의 지표에 의하여 우리가 민족시로서의 시조를 창조하고 내세워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다.

마당극 본 新入生 송진태 君



전통문화는 해방後, 무분별한 外來文化와 관념적인 사치비 고갈로 말미암아 애국적 70년대 이후에 마당극을 위시한 전통문화에 관심이 집중, 리얼리즘극과 탈북부흥운동의 정맥으로 생겨난 마당극은 학생운동의 이념을 반영하면서 민족정향의 정서를 전통문화의 틀 속에 융해시켜 大學共同體의 문화정신을 담당해왔던 것이다.

지난 20일, 불상암 (해방 마당)에서 있었던, 불교민속연구회 주최의 마당극대회가 이세상에 태어나! 공연 중에 만난 新入生 송진태 (이부대 부영학과) 군은 『내



주에서 권력상속구만을 지닌 기괴주의적인 모습을 버리고 참다운 이 땅의 주입임을 인식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나의 의견을 밝힌다.

또 『학내문화활동만 학내 운동에서의 자리매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단순히 말장난에 그치지나 저급한 흥미성만을 추구한다면 본래의 마당극이 지니는 희석이 합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 송태에게서 신입생답지않은 성숙한 思考를 읽어낼 수 있었다.

이어 대학문화에 대해서도 『문화의 민주화』 통해 우리사의 전반에 걸친 민주화를 실현하고 歷史의 주체인 민중의 해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문화『대행』을 단순히 상아탑적인 의미로서만이 아니라 사회참여를 통한 학내의 민주화를 추구해야 한다』며 학생을 대표하는 일부 선배들이 실질적 학내문제와 변화』를 운하면서 『물명보다는 편』을 내건 편협한 논리에 조심스럽게 一화를 놓기도 한다.

『내가 이세상에 태어나 결백기를 벗고서 자유의세상에 살려나. 나 이 어둠을 밝히고 싸운다...』와 반박한 송태는 노년부들은 송태의 모습에서 민주주의의 앞날을 예견하며, 우리의 대학문화는 단순히 패상화의 복이라는 차원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민족공동체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흥미마당극을 버렸다. <남정명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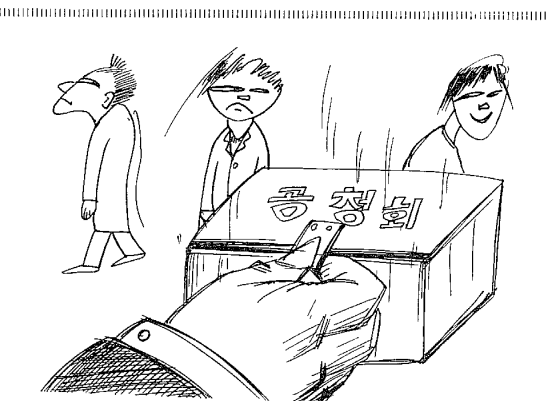
東岳路

가 우리로서 어우러질 수 있었던 한마디였다. 라고 감상을 이야기한다. 대학에 입학한지 얼마안되는 신입생으로서 그런 현실비판적인 풍자극을 대할 때 어떤 감흥과도 없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연기자들과 같이 호흡하고, 야유하고, 신랄하게 웃어대면서 하 나일을 느꼈다』고 속삭이게 된다.

또 송태는 낯선 사회적 현실, 정치적 시각들을 이런 마당극을 통해 별 거부감없이 접할 수 있었다면서 『아직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신입생들에게 이런 자리가 가뭇의 마당 되어 공동체적 분위기에 어울리게 있어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한다.

이번 마당극은 『한반도에 서 이 땅을 딛고서야 할 지식인의 입부』라는 주제 아래 현대 교육의 문제점, 외세의 침략, 문화침탈과 진정한 大學人像의 정립을 제시하였는데 송태는 이번 마당극을 통해 막연하게나마 주체성을 가진 지식인의 사명의를 느꼈다면서 『제도교육에 길들여진 비주체적인 모습이나 현실안

東國漫評



◇『파란 무엇이 나올까?』

주식회사 녹십자
GREEN CROSS
식품사업부

날씬함을 지키면서 단맛을 마음껏

축
입
학



젊은 여성을 위한 다이어트 감미료
— 그린스위트

그린스위트는 감미롭고 산뜻한 단맛을 내면서도 칼로리가 극히 적어 살형 염려가 없는 젊은 여성을 위한 획기적인 감미료입니다.

그린스위트는 당질이 아니고 아미노산계 감미료이기 때문에 비만은 물론 당뇨, 중추적경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의 달콤함을
그린스위트는 과일, 야채, 우유 등에 들어 있는 것과 같은 필수 아미노산2종을 합성하여 만든 이소파람 (FDA공인) 이 주성분이므로 천연식품과 동일하게 소화·대사되며 뒷맛이 부드럽고 산뜻합니다.

모든 요리에
그린스위트는 커피, 국산자, 각종 과일, 화채 등에 맛과 향을 더욱 살려줄 뿐 아니라 모든 요리에 설탕대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맛의 혁신
그린스위트



■ 최상소비자까지
●가량용: 100g포: 2,000원, 120g: 3,000원
200g: 4,500원
●일반용: 1g×20포: 700원, 1g×50포: 1,700원
●휴대용: 50g: 800원, 100g: 1,500원

●구입처: 전국유명약점식품매장, 수미약품
●문의처: 녹십자식품사업부 685-0171~2

[illegible]